

충북건축사회, 「지역성 탐색 대토론회」 개최

청주·충주지역 도시건축의 지역성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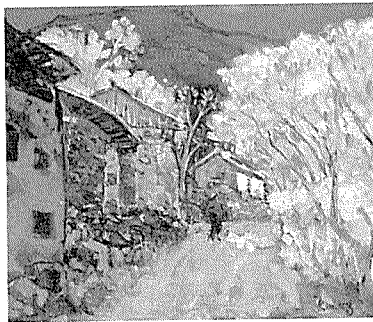
21세기 청주·충주지역 도시건축문화의 지역성 탐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3월 1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를 비롯한 충북지역 건축3단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원문화권인 이들 두 도시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들이 건축 관련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데 비해 지역경제와 환경, 역사, 문화 등에까지 토론편위를 확대시켜 물질적 외형적 성장에 묻혀버리기 쉬운 지역 도시건축의 정체성을 돌이켜 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철호(한양건축 대표), 류익선(광장건축 대표), 이재현(청주대 교수), 한규영(충북대 교수), 이동주(청주기 도시계획 계장), 이주형(청주 경실련 사무국장), 김이구(예성건축 대표)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청주, 충주의 역사와 문화', '청주·충주의 도시공간, 현대건축의 오늘과 내일' 등 각 주제별 주제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오세제 청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임해순 예총 충북지부장, 최병준 청주시민회 공동대표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시민 2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광경

광주건축사회 미술동호회 회원전

유화, 수채화 등 미술작품 32점 전시



산동의 봄 / 김유지작

광주건축사회(회장 윤익상)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동호회장 김유지 / 유지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첫번째 회원작품전을 가졌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4일까지 광주시 소재 궁동갤러리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와 수채화 등 회원 각자가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히 그려온 32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돼 지역 미술인들과 일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시 첫날인 2월 26일에는 광주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큰 성황을 이뤘다.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는 앞으로도 차기 양동현회장을 중심으로 건축사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회를 희망하는 건축사 회원은 전화 062-381-0300~2 또는 062-523-5422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계소식 archi-net

'98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공모

3월 25일부터 한달간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후원하는 제17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작품공모 요강이 확정 발표됐다. 올해 건축대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공모전과 초대전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건축설계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일반공모전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원서를 교부해 8월 31일과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작품을 접수하며 초대전은 별도의 원서교부 없이 10월 8일에 작품을 접수한다.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및 1차 작품접수는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에서 하며 2차 작품접수에 한해 전시장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현장 접수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강석원, 김병현, 서보광, 유원재, 이정근, 정시춘, 최영집 등 7인 건축가들이 참여해 일반공모전 대상 1점(상장 및 상금 5백만원), 우수상 3점(각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특선 약간점(각 상장 및 상금 오십만원), 입선작다수를 선정한다. 한편 올해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서울시건축상 금상에 「한국경제신문사」 사옥

창조건축 조재원 회원 설계작품

서울시가 주최한 제16회 서울시건축상 심사결과 「한국경제신문사 사옥」(창조건축 조재원 설계)이 비주거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서울시건축상에는 총 56점이 응모해 경합 끝에 모두 11개 작품이 상을 받았는데 금상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사옥의 경우 심사위원들로부터 대지의 고저차를 원형과 박스형 매스를 적절히 배치해 효율적으로 극복해 냈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서울시건축상의 주거부문 은상은 영락교회50주년기념관(정주건축 정시춘 설계)이, 동상은 씨앤씨빌딩(일건씨앤씨건축 최관영 설계)과 공간신사옥(공간건축故장세양 설계)이, 장려상은 중앙구청사(원도시건축 변용 설계)와 청학빌딩(인우건축 함인선 설계)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주거부문에선 금상 해당작 없이 은상에 거여지구1,4단지 아파트(토문엔지니어링 최두호 설계)와 메조트론(아르키움 김인철 설계)이, 장려상에 웨스틴조선호텔 H빌라(다건축 유원재 설계)와 서초동 다세대주택(경영위치건축 김승희 설계)이 각각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사 사옥

서울건축학교 97/98년도 제3쿼터 수강생 모집

5월 8일 개강

서울건축학교(SA/ Seoul School of Architecture)에서는 97/98년도 제3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내외 건축관련 학과 학생 및 설계사무소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제3쿼터 과정은 오는 5월 8일에 개강해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모집정원은 20명이다. 원서마감일은 4월 24일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제3쿼터는 설계스튜디오 수업을 중심으로 건축가세미나, 초청강연, 건축기행,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건축학교는 지난 95년초 '이 땅 이 시대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20여명의 건축가들이 실험학교를 처음 개설한 이후 그동안 각종 워크샵과 세미나, 초청강연 등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건축가의 위상 정립과 열린 교육을 위해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각 스튜디오 튜터에 의해 작성된 자율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은 열린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서울건축학교의 제3쿼터 수강생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 응시자격

- 설계사무소경력 3년이상인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 국내외 대학원에서 건축관련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인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모집인원: 20명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A4 규격 2매 이내)
- 졸업(수료)증명서 학위등록증 사본
- 작품집(건축도면, 드로잉, 사진, 컴퓨터드로잉 등 자신의 작업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이면 가능 / A4사이즈 20매 이내)

• 97/98년도 제3쿼터 주요 프로그램

- 설계스튜디오(스튜디오 튜터: 김영섭, 김홍일, 서혜림, 조병수, 최욱)
- 설계지원스튜디오(스튜디오 튜터: 강성원, 강혁, 김기호, 김봉렬, 박선우) - 건축가세미나(김병현, 민현식, 김석운, 최두남),
- 초청강연(이레네 스칼베르/영국 AA 평론가)
- 건축기행(5~6월 2회)
- 정기강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주제: 한국학 II)

중국建築史學국제회의 참가자 모집

8월 18일부터 4일간 북경에서 열려, 논문접수중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8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회 중국건축사학회 국제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양홍훈(楊鴻勳)을 비롯해 윤홍택(건국대/한국), Else Glahn(코펜하겐대학/덴마크), N.S. Steinhardt(펜실바니아대학/미국), 이화선(평양건설건축재대학/북한), 田中淡(경도대학/일본) 등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대학교수들이 발기인으로 나서 오는 8월 21일부터 4일간 북경 향산호텔에서 개최된다. 참가비는 일반인일 경우 미화 500달러, 학생은 250달러이다. 발표 논문주제는 ▶도시, 궁궐, 종교건축, 향토건축, 원림 ▶실내디자인 및 가구 ▶고대 근대, 현대건축의 역사 ▶건축이론 및 연구방법론 ▶건축사학사 ▶CAD ▶역사건축과 장소의 보존 등으로 논문 및 구두발표 공식언어는 영어와 중국어이다. 논문제출기한은 98년 6월 1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건축역사학회(전화 0331-290-7558 성균관대 윤인석 교수)나 중국(전화 8610-6601-7351, 팩스 8610-6841-1233 / Zhang Xiao-lin)으로 하면 된다.

‘건축인 POAR 여름 워크숍’ 참가자 모집

2박 3일간의 공동체 학습시간 마련

월간 건축인 POAR에서는 오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동안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민박집에서 공동학습체험을 위한 여름학교를 개설하고 희망참가자를 모집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이상 설계실무 5년차 이하의 건축인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해 워크숍기간중 강의 및 토론, 특강, 고건축답사 등을 통해 공동체학습의 시간을 갖고 인접 해변과 어시장에서의 공동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한다. 신청접수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교통비 및 숙박비, 교재비 등을 포함해 15만원이다. 참가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접수시킨후 아래 지정계좌에 참가비를 납부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번지 창호빌딩 201호(전화 02-637-3890)
- 참가비 납부 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752-01-0013-489(예금주: 김수영)

제3회 살기좋은 아파트 공모

97년 1월~98년 2월 준공·입주한
아파트 대상

매일경제신문사와 매일경제TV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택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제3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모집부문은 주택사업 지정업체와 등록업체 2개부문으로 2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분으로 97년 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 기간중 준공돼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격은 3년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보유한 주택사업 등록업체로 단지배치도 및 조감도, 현장사진을 포함한 특장점 설명서를 16정~2절 규격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로 수상작은 6월초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를 통해 발표된다.

작품접수 및 문의: 매일경제 사회2부 (02-2626-179-183)

제16회 공간학생건축상 공모요강 발표

주제는 사이버 가수를 소재로 한
‘아담의 산책’

(주)공간사(대표 이상림)에서는 空間지 3월호를 통해 제16회 공간학생상 작품 공모일정을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전은 최근 대중문화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가수 아담을 소재로 한 ‘아담의 산책’이 주제로 제시되었는데 주최측은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의 탈피를 내세우고 있어 주제에 대한 응모자의 건축개념 전개가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패널에 건축적 사유로 옮겨 놓던 기존의 출품 방식과 달리 자신의 작품을 CD에 담아 제출토록해 다른 장르와의 디자인 협력을 권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간사는 이번 주제가 다소 난해한 만큼 매월 공간지를 통해 보다 발전된 내용의 주제해석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인 건축가 김원씨가 밝힌 주제에 대한 해설과 주요 공모요강이다.

문의: (주)공간사 (02-747-2892)

1. 주제: Adam의 산책

- 주제해설: “아담, 그를 최초로 만든 이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그가 숨쉬 건축적 환경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

는 일은 사이버 공간의 구체적인 기획을 위한 실험이란 측면에서 건축분야가 나서볼 일이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반응체내지는 인식의 주체가 설정되었을 경우 이의 해석과 접근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의 다양한 사고와 논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2. 응모자격: 국내외 전문대학·대학·대학원생

3. 공모일정

- 신청서배부 및 접수: 98년 6월 15 ~ 9월 19일

- 질의 및 회신: 7월 4일까지 팩스로 접수후 공간지 8월호에 게재

- 작품접수 마감: 98년 9월 19일

- 발표: 98년 10월중 개별통보

4. 출품규정

- 작품은 미발표작에 한하며 CD에 담아 제출(팀작업일 경우 디자인의 영역 명기)

포스에이씨

ISO9002 인증 획득

설계부문 인증도 추진중

포스에이씨(대표 심인보)가 영국 품질인증기관인 로이드 품질보증협회(LRQA)로부터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900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월 9일 정식 인증서를 받았다. 포스에이씨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해 3월 ISO인증추진반을 구성해 같은 해 9월 품질보증 표준문서를 확정해 포항과 광양의 제철 프로젝트에 품질 시스템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에이씨는 이번 품질인증의 범위가 토목·건축 및 제철플랜트를 포함한 산업플랜트에 대한 안전진단분야로서 설계를 제외한 건설 전분야의 건설사업관리(CM)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품질경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내년쯤엔 설계부문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고자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대 건축특강 및 세미나

곽영훈 민선주 등 국내외 인사
초청강의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대학원에서는 건축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더니즘 이후의 실증적 건축미학', '유럽의 성당건축', '들러붙는 건축' 등 건축관련 다양한 주제들로 펼쳐지는 이번 1학기 특강 및 세미나는 오는 5월말까지 총 13회에 걸쳐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과 수원캠퍼스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문의: 경기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공학과(서울캠퍼스: 02-390-5159, 수원캠퍼스: 0331-44-6300), 건축대학원(02-390-5245~6)

• 특강일정

- 모더니즘 이후의 실증적 건축미학 / 김원식(투병대학 연구원) / 3월 12일 17:00 수원캠퍼스 - 유럽의 성당건축 / 박효순(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 3월 27일 16:30 서울캠퍼스, 4월 2일 17:00 수원캠퍼스
- 초현실적 응시 / 헬렌박(건축가) / 4월 10일 16:30 서울캠퍼스, 3월 26일 17:00 수원캠퍼스
- 존재방식으로서의 건축(건축가, 토문건축) / 4월 16일 17:00 수원캠퍼스
- 도시와 예술 / 정보원(조각가) / 4월 24일 16:30 서울캠퍼스
- 지구촌 문명시대를 대비한 21세기 한국건축의 기본방향 / 5월 22일 16:30 서울캠퍼스
- 세미나일정
- 신 바우하우스교육 / Jarg H. Gleiter (독일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대학) / 3월 4일 17:00 서울캠퍼스
- 건축설계과정 안에서의 사고 유출 / 김준성(경기대) / 3월 18일 11:00 서울캠퍼스
- 소리 그리기 / 김창수(작곡가, 인도음악가) / 3월 26일 11:00 서울캠퍼스
- 들러붙는 건축 / 민선주(경기대) / 4월

- 1일 11:00 서울캠퍼스
- 탈춤미학 / 송인현(봉산탈춤인수자, 극단 민들레 대표) / 4월 2일 11:00 서울캠퍼스
- 기억자집 일자집 / 조병수(경기대) / 4월 8일 11:00 서울캠퍼스
- 발상전환의 계기 / 정은선(한국미술협회 회장) / 4월 9일 11:00 서울캠퍼스

여성건축가협회, 주택건축 상담사례집 발간

주택유형별 신·증개축 상담사례 수록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복수)가 (주)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주택건축무료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문숙경, 박연심, 조순영 등 여성건축가협회 회원 8인이 지난해부터 순번에 따라 일반 건축주들을 상대로 벌여왔던 주택 유형별 주요 상담사례들이 수록돼 있다. 여성건축가들은 그동안 주택신축이나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고객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코자 지난해 5월부터 대우건설 주택문화관내에서 총 95건의 상담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주택 유형별 상담사례와 함께 자세한 상담절차나 건축주가 알아야할 사전 검토사항이 수록돼 있어 주택 신·증개축을 계획 중인 일반건축주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담자들은 주로 일반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해 기본적인 공간계획, 건축법, 예상공사비, 건축재료 및 설비, 건축시 제세공과금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주택건축 상담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으며 사전에 상담고객이 상담희망물건의 정확한 주소

지와 상담희망사항을 상담자에게 알려주면 구체적인 상담일이나 준비사항을 알려준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상담예약은 전화 02-259-5454/5455로 하면 된다.

건축대 건축대학원장에 이호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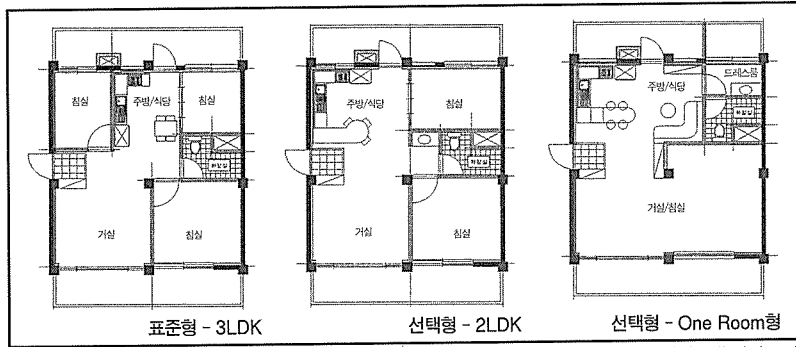
교학부장에는 이점환 교수 임명돼

건국대 이호진(건축공학과)교수가 건국대 건축대학원 원장에 임명됐다. 건국대학교는 또 지난 3월 1일 인사발표를 통해 건축대학원 교학부장에 이점환(건축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와 실내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96년에 설립된 건국대 건축대학원은 겸임교수진과 건축공학과 및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그리고 외래 강사 등을 포함 약 90여명의 전문가들이 스튜디오 중심의 강의와 실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전문가중엔 윤승중(원도시 건축), 김석철(아키반), 원대연(PLUS건축), 이정근(우리계획), 김인철(아르키움 건축), 장해철(T.S.K), 이호중(옥타콘 디자인), 김개천(이도건축) 등 국내 유명 건축가들이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주공, 국내최초 RC조 기변형주택 개발

개조 및 보수 용이, 급변중 수도권에
시범사업 추진

대한주택공사가 국내 처음으로 개조 및 보수가 용이한 RC조(Reinforced



가변형주택 평면 모델

Concrete) 가변형주택을 개발했다. 기존의 가변형주택들이 단순히 거실과 침실 또는 침실과 침실의 통합이나 분리만 가능했던 데 비해 주공의 가변형주택은 입주자가 집안을 바꾸고 싶을 때 거실이나 침실 뿐만 아니라 주방, 욕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내부평면을 바꿀 수 있도록 개발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공은 개발평형을 ▶전용 18평형의 거실, 방이 3개로 되어 있는 3LDK형 표준형▶ 거실, 방이 2개인 2LDK형 ▶원룸형 등으로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3가지 평면을 제시해 분양시 선택,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이 가변형주택을 더욱 발전시켜 현재 자사 주택연구소가 연구중인 부품형 주택시스템 개발과 연계해 내부벽체를 완전건식화 하므로서 주택구성재의 분리, 교체, 조립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벽체 상호간의 이동시에도 재활용이 가능토록해 자원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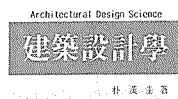
문의: 대한주택공사 설계개발처 주택계획부(0342-738-4140)

“이제 건축설계 작품을 감성이나 직감으로만, 그리고 그림에 의해서만 만들어내는 시대는 지났다.”

「건축설계학」이란 건축설계 방법에 관한 이론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수립되면서 탄생된 학문으로 1960년대 영국에서 발생했다.

저자는 건축설계학의 특성을 기능, 구조, 미 등 건축설계의 3대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설계 진행방법, 건축프로그래밍 방법, 건축설계의 사고방법 그리고 건축설계 평가방법 등 4가지의 건축설계방법과 여기에 건축설계원리를 포함하여 건축설계의 이론을 확립시키고 건축제도 기법, 투시도기법, 모형기법 그리고 CADD기법 등 다시 4가지의 건축설계기법을 개발해 내므로서 건축설계의 실체를 확립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의 원리는 ‘건축의장학’으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건축설계기법’ 또한 종류에 따라 각기 독립된 분야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학)의 본론은 결국 (건축설계 방법론)을 근본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技文堂

건축신간

건축설계학
주거인간공학

◇ 건축설계학(Architectural Design Science)

이 책은 지금까지 관습화되었던 건축설계에 대한 건축가의 태도와 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건축에 대한 평가」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규著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9×26cm / 361쪽 / 1만5천원

주거인간공학

技文堂

◇ 주거인간공학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주거는 어떻게 계획되어야 할까?”

저자는 건축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한 ‘인간공학’을 주거계획에 적용하여 주거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인간공학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인간공학을 배려하여 공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인간과 공학과 주거계획적 요소에 대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1장 주거인간공학에 대한 개념 소개에서 주거와 인간공학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인체요소의 특성을 3장 주거인간공학의 방법론에서는 생리학적 연구방법과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4장 실내환경과 인간공학에서는 빛·음·공기·열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방법을, 5장 주거공간과 인간공학에서는 인체치수 및 공간치수를 고려한 주거환경계획을, 6장은 가구와 인간공학, 7장은 인간을 고려한 주거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안옥희, 정준현, 김순경共著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9×26cm / 218쪽 / 1만원